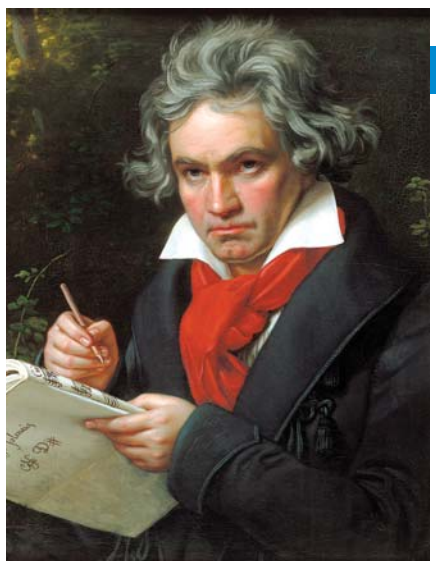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

빛고을서 베토벤 기린다

‘베토벤 전문가’ 루돌프 부흐빈더 6년 만의 내한…5월 8일 문화전당
피아노학회 호남제주지부 ‘교향곡 전곡시리즈 I’ 26일 금호아트홀

김정아

서현일

나성하

2020년은 악성(樂聖) 베토벤(1770~1872)의 탄생 250주년이다. 2020년을 앞두고 광주에서도 그를 기리는 다양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베토벤 애호가들 사이에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공연 중 하나는 세계적인 ‘베토벤 전문가’ 루돌프 부흐빈더(73·오스트리아)의 6년 만의 내한이다. 부흐빈더는 오는 5월8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처음으로 광주 공연을 갖는다. 연주회가 2달 가까이 남았음에도 전체 객석(512석)의 5분의 1 정도만 남기고 예매가 이뤄질 정도로 지역에서 만나기 힘든 거장의 공연에 관심이 뜨겁다.

부흐빈더는 베토벤 연주사에 한 획을 그은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린다. 열렬한 악보 수집가인 부흐빈더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을 39종이나 소장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자료 연구에 기반을 두고 32개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전 세계에서 50차례 넘게 열어왔다. 또 2007년부터 오스트리아 관현악 음악축제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수 차례 녹음한 그는 이날 피아노 소나타 10번, 13번 ‘환상곡풍의 소나타’, 8번 ‘비창’, 25번 그리고 23번 ‘열정’으로 소나타의 향연을 펼친다. R석 7만원·S석 5만원·A석 3만원. 문의 1899-5566.

베토벤의 교향곡을 건반 위로 올려 놓은 공연도 광주에서 열린다.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제주지부(회장 김정아)는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정기 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전곡시리즈 I’을 연다. 전문 피아니스트들이 1991년 결성한 한국피아노학회는 정기 연주회와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베토벤의 9개 교향곡 중 5개를 만난다. 1대의 피아노를 2명이 연주하거나 2대를 4명이 치는 독특한 구성으로 연주회를 진행한다.

먼저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서곡’(서양지·이슬·조성경·김미영)으로 무대의 문을 연다. 이어 ‘교향곡 1번 C장조 작품 21’ 1악장(서현일·박의혁), ‘2번 D장조 작품 36’ 1악장(동수정·최유진·이현주·김민희), 3번 ‘영웅’ 1악장(조혜원·최연주), 6번 ‘전원’ 1악장(신지혜·반수진)을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으로 5번 ‘운명’의 1·4악장을 서윤진·이주영·김여진·장지민, 김형미·김혜진·임인수·김정아가 4명씩 조를 나눠 2대의 피아노로 연주한다. 내년 3월에는 ‘베토벤 교향곡 전곡시리즈 II’가 이어진다. 전석 초대. 문의 010-6331-6834.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 2020년을 앞두고 그를 기리는 공연이 쏟아질 예정이다.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 ©Marco Borggreve

앞서 23일 오후 7시 금호아트홀에서는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출신 피아니스트들이 베토벤 피아노 콘서트 ‘콘파시오네’를 연다. 이민음·류단비·김지나·신주희·나성하·박지은·김세진·김시영씨는 이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개 중 8개를 연주한다. ‘8번 비창’과 ‘17번 템페스트’, ‘21번 발트슈타인’, ‘23번 열정’ 등이 무대에 오른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10-7373-0614.

2019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박종해(30)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6번과 23번 ‘열정’으로 4월1일 광주 관객을 찾고, 박종화(44) 서울대 교수는 5월2일 광주 공연에서 베토벤의 ‘디아벨리 왈츠에 의한 33개 변주곡 작품 120’을 연주한다.

지난해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로 광주를 찾은 피아니스트 김다솔(30)은 12월 17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시리즈를 이어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희원 작 ‘앙코르와트 사원의 일몰’

캄보디아 ‘가치/같이-나눔여행’ 전

23일까지 광주 메이홀…김해성·고근호 등 참여

올 1월 지역 작가들은 캄보디아의 작은 학교를 방문했다. 난생 처음 크레파스를 쥐어 본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작가들은 학교의 벽에 알록달록 벽화를 그렸다. 눈을 만나기 어려운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눈사람을 주인공을 한 벽화를 그렸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아이들, 흥겨운 음악에 춤을 추는 아이들이 작품 소재가 됐다.

이 여행은 광주국제협력단이 기획한 ‘제1기 국외문화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가치/같이-나눔여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프로젝트는 서양화가 김해성 작가가 기획하고 아트 펀딩을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미술 활동을 하고 광주에서 마련해간 물품들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골라가는 나눔 장터도 함께 열었다.

당시 캄보디아를 찾았던 이들이 캄보디아 시엠립, 프놈펜 등 현지에서 작업한 그림들과 함께 나눔여행의 감흥과 여행지에서의 얻은 영감을 마음에 담고 와 광주에서 작업한 작품들을 모아 광주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광주시 동구 메이홀에서 열리는 ‘나눔여행’전에는 고근호·전현숙·김형태·모지형·문정호·박광구·임종두·이승기·한희원·구혜란·염동훈·문희진씨 등 중견작가 8명과 새내기 작가 6명 등 모두 13명이 참여했으며 캄보디아 아이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작가들의 여행비를 지원해준 이들과 작품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7월에는 제2기 나눔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문의 010-6791-805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간의 기억

‘Dream-memory 1731’

김혜숙전 31일까지 LH휴랑갤러리

서양화가 김혜숙 작가 초대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 본부 1층 LH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시간의 기억 V’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2016년부터 김 작가가 진행하고 있는 ‘시간의 기억’ 시리즈의 연장으로 현대인의 무의식적 욕망에 대한 탐구와 지난 기억과 꿈을 소환하는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건 수많은 신문을 접어 켜켜이 쌓아 붙인 콜라쥬 작품이다. 신문 안에 내포딘 수많은 사건, 사고, 사연들은 작가의 일상과 함께 쌓여가는 ‘시간의 기억’이자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밖에 어머니가 어릴 적 담아주던 따뜻한 고봉밥의 기억이나 생명을 잉태하는 갯벌을 반추상적 이미지로 담아낸 작품이 눈길을 끌며 푸른빛의 그라디에이션이 돋보이는 바다 풍경 등은 안온함을 준다.

조선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순수미술학 석사, 미술학 박사 과정을 졸업한 김 작가는 광주전남여성작가회 회원, 리나아트 대표를 맡고 있다. 토·일요일 휴관. 문의 062-360-3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발전소 ‘문화통plus’ 봄호 나와

광주문화발전소가 발행하는 계간 ‘문화통plus’ 봄호가 나왔다.

이번호는 손혜원 국회의원 파동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근현대 역사문화와 생화사를 관통하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집중취재 했으며 ‘전라도문화 수수께끼’에서는 임진왜란 이듬해 선조의 지시를 받아 경상도로 보내어진 종자나락 2만석의 비밀을 풀었다.

대표적인 특집기획물인 ‘전남의 마을 1박2일’에서는 거북선을 설계한 나대용 장군의 생가 마을인 나주시 문평면 오룡리를 찾아 500년 역사의 생가와 제각인 소충사, 금성나씨의 시조단과 경모사 등을 취재했다.

‘문화通이 간다’에서는 ‘광주속의 러시아’로 불리는 광산구 하남의 고려인 마을을 찾았으며 조용헌 칼럼, 19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정윤희, 장미희 ,유지인에 얽힌 이야기와 광주출신 트로트가수 홍진영 인터뷰 등 읽을거리가 많다. 또 ‘남도를 빛낸 여성’에서는 수피아여학교 고등과 3학년 때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대를 이끈 독립투사 최현숙의 삶을 소개했다.

한편 문화통plus는 최근 지역 계간지로서는 유일하게 한국잡지협회가 문광부 후원으로 시행하는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됐다. /김미은 기자 mekim@